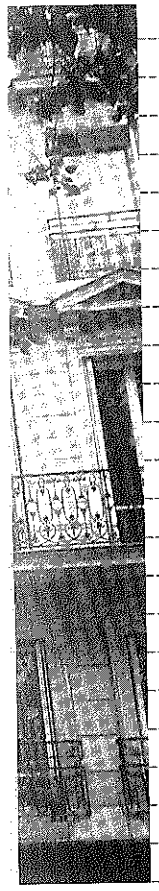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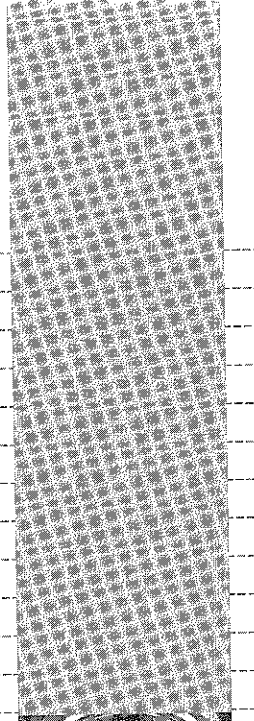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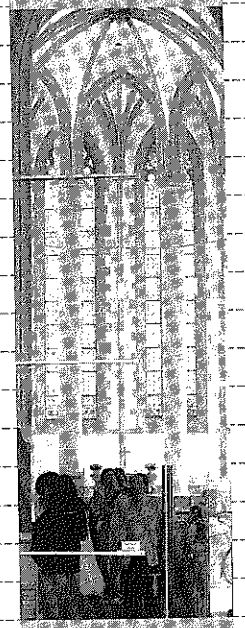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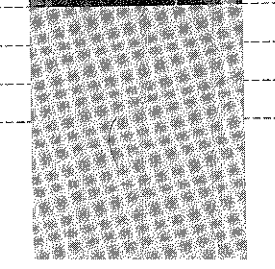

교회의 속성으로서의 거룩성과 선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Holiness of the Church and Its Relationship to the Mission of the Church

이신열[1]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6
Ⅱ. 신적 속성으로서의 거룩성에 나타난 이중적 방향성	18
Ⅲ. 이중적 방향성을 통해 살펴 본 성화의 선교적 차원	21
Ⅳ. 교회의 거룩성과 선교의 관계	25
1) 교회의 거룩성과 개인적 성화	25
2) 교회의 거룩성과 선교	28
Ⅴ. 선교를 위한 성령의 능력 부여와 성화와의 관계	40
1) 개인의 성화와 선교	41
2) 교회의 거룩성과 선교	43
Ⅵ. 나가는 말	44

요약

교회의 속성으로서의 거룩성과 선교

본 논문은 교회의 속성으로서의 거룩성이 개별적 성도의 내적, 윤리적 삶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닌 선교적 사명과 깊게 연관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거룩성의 특징을 구심성과 원심성이라는 이중적 방향성의 차원에서 파악하는데 전자는 거룩성의 내적이며 윤리적 차원을 가리키며 후자는 세상을 향한 거룩성의 표현을 뜻한다. 이 이중적 방향성이 신적 속성으로서의 거룩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개인의 성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한 후에 교회의 거룩성이 선교라는 교회의 사명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밝혀 나간다. 개인의 성화에도 세상을 향한 외향적이며 원심적 차원이 존재하지만 교회는 앞서 언급된 이중적 방향성의 주체로서 거룩성을 통하여 선교를 수행해 나갈 책임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교회의 거룩성과 선교와의 관계를 현대 신학적 입장에서 파악하기 위해 칼 바르트(Karl Barth), 위르겐 몰트만(Juergen Moltmann), 베르까우어(G. C. Berkouwer)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바르트의 성화와 선교에 대한 이해는 사실상 성령을 그 주체로 이해함에 그 핵심이 놓여 있으므로 교회가 거룩성을 통해 이를 능동적으로 수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몰트만은 교회의 거룩성을 종말에 임하게 될 희망의 진술이라는 지평에서 고찰하므로 이를 사실상 신앙적 관점에서 나타내어야 할 행동의 진술로 이해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교회의 가난한 자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있어서 그 출발점과 기준은 가난한 자로 규정되므로 몰트만이 주장하는 선교는 보편적이며 교회 중심적이 아님이 분명하다. 베르까우어는 거룩성의 이중적 방향성의 기준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밝힌다. 이를 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증언하는 선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밝힌다. 마지막으로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은 그 초기 역사에 있어서 성화를 선교를 위한 능력부여의 차원에서 이해하였지만 그 발전과정에 있어서 특히 로드만 윌리엄스(J. Rodman Williams)는 성화와 선교를 지나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원론적 이해에 근거한 것이다. 즉 성령의 사역을 구원론적인 차원과 선교적인 차원으로 양분한 결과 선교 이해에 있어서 성령을 중심으로 한 이중적 방향성이 인정되지만 이는 개인의 성화나 교회의 거룩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주제어:

교회의 거룩성, 선교, 성화, 이중적 방향성, 성령의 사역

A Study on the Holiness of the Church and Its Relationship to the Mission of the Church

Prof. Dr. Samuel Y Lee

The purpose of this articles is to affirm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holiness of the church and her mission to the world. In order to fully show this relationship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e dual directionality - inward and outward - inherent in holiness as one of the attributes of God and as the goal which all Christians must strive after in his entire life. An inward directionality means inner and ethical purity arising out of the sanctifying work of the Holy Spirit on individuals who are saved from their sins. An outward directionality refers to their activities toward the world exhibiting their purity and reflecting Christ-likeness. A net result of these outward activities can be summarized as the 'mission' of the church. Thus the holiness of the church reveals not only totality of being the people of God in her ethical purity but also in her activities of mission toward the world. Furthermore, it is examined how this concept of a dual directionality is perceived in thoughts of modern theologians including Karl Barth, Juergen Moltmann, and G. C. Berkouwer. While Barth is sensitive to the dual character of holiness, his emphasis on this concept cannot fully represent the role of the church in it because his understanding tends to view the Holy Spirit as the basis and the center of both directionalities in holiness. Moltmann's concept of mission is too universalistic to allow any decisive role of the church in her endeavor to bring the Kingdom of God in this world. Instead holiness is expressed in terms of poverty in order to make this concept more concrete. Then not the church but the poor occupy a starting as well as a central point in his understanding of this directionality. Berkouwer sees the presence of and the witness for Christ as the central point of this directionality. Finally, it is examined how this concept is perceived in pentecostal and charismatic theology. In early history of Pentecostalism, it is true that sanctification had been considered as providing power for service and mission. But in pentecostal and charismatic theology, especially in that of J. Rodman Williams, it is apparent that sanctification and mission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due to an bifurcated understanding of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s a result, soteriological reality such as sanctification does not bear any factual relationship to the mission of the church as the commission of Christ.

Keywords

holiness of the church, mission, dual directionality, work of the Holy Spirit

I. 들어가는 말

교회사 속에서 교회의 성장과 확장은 교회의 속성 중 보편성(catholicity)과 가장 깊게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보편적으로 어느 시대에나 어느 지역에든지 존재한다는 사상은 교회가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다른 지역에 전파해야 한다는 선교의 개념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가 지닌 국제적(international)이며 세계주의적(cosmopolitan) 성격을 교회가 구현해 나간다는 차원을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개념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성 (holiness)이라는 속성은 일반적으로 교회가 지닌 선교적 사명과 관련없이 교회의 본질을 내재적인 차원에서 규명하는 속성으로 이해되어왔다. 이를 예전적 (liturgical) 차원에서 이해하였던 로마 가톨릭과는 달리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 특히 개혁주의는 이를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성도의 교제(gemeenschap der heiligen)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였다.[2] 이는 모든 성도들이 신자들로서 그리스도의 거룩을 덧입고 거룩한 자들로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과 중생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지키려는 열심을 지닌 자들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교회의 거룩성

1) 이신열 교수는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 of New York at Binghamton) 화학과(B. A.), 펜실바니아 비블리칼 신학대학원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M. Div.)을 졸업한 후, 네덜란드 Apeldoorn 기독개혁신학대학교에서 신학석사(Drs.) 학위를 받고 동교에서 "Grace and Power in Pentecostal and Charismatic Theology"(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의 은혜와 능력 개념 연구, 2002)라는 논문으로 신학박사(Th. D.) 학위를 받았다. 백석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고신대학교 조직신학 담당 교수이다.

2) H.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IV (Kampen: Kok, 1929), 305-306. 이후에 GD로 표기함.

이란 성도들의 칭의와 도덕적 거룩성의 관점에서 이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칭의에 근거하여 교회 내에서 개별 신자들이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로서의 성화라는 차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구원론적 관점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로 사실상 성화론 이해라는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부여 받은 복음 증거와 선교라는 세상을 향한 사명에 대한 근본적 동기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3]

그렇다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에 대한 더욱 적절한 동기 부여라는 관점에서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속성에 대한 새로운 고찰의 필요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이를 통하여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분의 능력을 입증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거룩성이라는 속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교회의 속성으로서의 거룩성이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과 개인의 성화와 교회의 속성으로서의 거룩성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교회의 이 속성이 어떻게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 이 이해가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라는 대 명제를 설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분명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된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이 교회의 거룩성과

3) 성화와 선교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구원론 관련 논문이나 단행본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성화에 대한 교리적 고찰의 결과로서 선교를 그 목표로 간략하게 두 페이지 정도로 언급하는 글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박영돈, "오늘날 교회의 구원과 성화," 박영선 브라이언 채플 외, 「구원 이후에서 성화의 은혜까지」(서울: 이레서원, 2005), 269-70.

선교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성화가 아닌 성령의 능력부여가 선교의 수단이라는 이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혁주의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신적 속성으로서의 거룩성에 나타난 이중적 방향성

바빙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공유적 속성 (communicable attributes)들 중에 그의 선하심, 의로움과 더불어 도덕적 속성으로 다루고 있다.[4] 거룩성은 그 분의 선하심과 관련된 것으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과 분리를 나타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되었다. 바빙크는 거룩성이라는 용어가 그 자체로서는 내용이 없으며 단지 관계적 용어로만 사용된다는 견해에 반대한다.[5]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이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구별과 분리에 근거한 개념이지만 이 구별과 분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율법 부여를 통하여 극복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었다. 따라서 바빙크는 신적 속성으로서의 거룩성이 '자체적 성격' (eigen karakter)을 지닌다고 보았다.[6] 그가 말하는 자체적 성격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는 구약에서 거룩성이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종합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종교적이며 윤리적일 뿐 아니라 제의적,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7] 이는 전체적 관계에 대한 것으로 거룩성이라는 신적 속성이 구약에서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4) GD II, 177ff.
5) GD II, 185.
6) GD II, 186.
7) GD II, 189.

드러나지 않았다는 그의 입장에 대한 설명에 해당된다. 신약에 이르러 신적 거룩성은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스스로를 제공하시어 구속하시고 모든 불의함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8]

그러나 바빙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거룩성을 사실상 관계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가 주장하는 이 관계는 하나님의 내적이며 존재적 본질과는 상관없는 관계 자체를 위한 관계는 아니다. 오히려 이 관계는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잘 보여주는 관계로서 언약(covenant)이라는 특별한 개념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출 3장). 이 언약적 관계는 일차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거리, 구별, 분리에 의한 부정적 관계에 관한 것을 나타내는데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이 관계는 총체적 관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라는 차원에 관한 것이다. 즉 이 관계는 이러한 부정적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선택하시되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보호하신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는 은혜에 의한 긍정적 관계 형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칼 바르트는 이런 차원에서 거룩성과 은혜를 상호 연관된 신적 속성으로 이해하고 있다.[9] 이 관계는 신적 거룩성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충돌함과 동시에 이를 포용하는 관계이므로 그 자체로서 모순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 모순의 핵심은 신적 거룩성은 무한한 것이지만 세상은 유한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성은 성령

8) Ibid.
9) Karl Barth, *Kirchliche Domgatik* II/1 (Zurich: Evangelischer Verlag, 1946), 395-413. 특히 402-404에 주목할 것. 바르트는 이 두 가지 속성들의 관계를 지나치게 변증법적(dialectical)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므로 양자 사이의 관계에 드러난 모순(paradox)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KD로 표기함.

의 사역에 의해서 해결된다.[10] 이를 통해 거룩성은 부정적이며 또한 동시에 긍정적이라는 총체적 관계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 관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즉 인간을 향하여 자신의 존재와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관계라는 일방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물론 바빙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거룩성이 일차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방향성을 지닌다는 사실이 분명히 인정되어야 하지만[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인간 편에서의 반응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거룩성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 헌신과 윤리적 순결이라는 인간적 반응을 동반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거룩성에 비롯되는 인간의 반응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의 반응은 거룩성에 있어서 또 다른 방향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거룩성은 우선적으로 그리고 일차적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와 이에서 비롯되는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태도와 행위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은 거룩성을 관계성의 차원에서 고찰함에 있어 두 번째 방향성의 문제에 해당된다. 여기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와 그 우선성을 생각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관계라는 거룩성의 이중적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중적 방향성은 그 자체로서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 편에서의 관계는 사실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후자에 대해 근원적이고 일차적인 반면에 후자는 전자에 대하여 의존적이며 이차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Wolfhart Pannenberg, *Systematic Theology*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91), 399-401.

11) GD II, 187.

III. 이중적 방향성을 통해 살펴 본 성화의 선교적 차원

성화(sanctification)는 앞서 언급된 거룩성을 구원론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죄인인 한 인간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죄의 오염과 능력에서 점차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점차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성화의 정의에 있어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사실은 성화의 주체가 죄인인 인간이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12]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성화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로 인해 이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성화가 인간의 행동과 상호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런 차원에서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중생 (regeneration)의 교리로부터 도출한다. 죄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하고 옛 자아를 죽이는 일(*mortificatio*)과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부활의 생명력을 성령을 능력을 통해 부여받아 살아난 새로운 자아를 계속 살리는 일(*vivificatio*)이 이에 해당된다. 성화의 부정적인 요소로서 옛 자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핵심은 죄에 대항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방향성에 관한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서 새로운 자아를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핵심은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삶에 놓여 있으며 그 분을 사랑하고 그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에 놓여 있다. 새로운 자아는 새로운 생명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추구하는 방향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13] 여기에

12) J. van Genderen & W. H. Velema,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Kampen: Kok, 1992), 588; GD IV, 236.

13) Van Genderen & Velema,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588.

서 우리는 중생의 관점에서 이해한 칼빈의 성화 이해가 '육체를 죽이는 일과 영을 살리는 일의 이중적 움직임' (der Doppelbewegung von *mortificatio carnis und vivificatio spiritus*), 즉 이중적 방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14]

이러한 칼빈의 주장에 근거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임무 또는 과제로서의 성화란 전통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신과 관계를 맺는가에 관한 문제, 즉 윤리적 문제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윤리적 문제란 사실상 구원 받은 자신과의 내적 관계(inner relationship)에 관한 문제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성화의 의미가 자신과의 내적 관계에 관한 문제로만 국한되는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성화가 이러한 자신과의 내적 관계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나타난 성화와 관련된 구절들을 살펴보면 먼저 주님의 말씀과 진리에 의한 성화 (17절)가 언급된다.[15]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미워하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15절)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성화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적 책임으로서 성화, 스스로를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성화는 사실상 성부 하

14) J. Calvin, Institutes, III, 3, 5; W.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7), 281.

15) Cf) 일부 신약학자들은 '거룩하게 하다' (sanctify)에 해당하는 ἁγιάζω를 '헌신하다' (consecrate)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단지 4회 (10:36, 17:17,19) 만 나타나며 선교를 위해 따로 세움을 입는다는 상황에 비추어 이를 달리 번역한다. 이러한 입장은 이 단어를 선교와 직접 연결시킨다는 장점도 있지만 거룩성이 어떻게 선교와 연결될 수 있는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C. K. Barrett,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An Introduction with Commentary and Notes on the Greek Text* (London: SPCK, 1955), 426; George R. Beasley-Murray, *John, Word Biblical Commentary 36* (Waco, TX: Word Books, 1987), 300; Johan Ferreira, *Johannine Ecclesiolog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122-23.

나님의 보호가 그 실질적 기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언급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한다는 설명(18절)은 말씀의 진리에 의한 성화에 근거한 것이며 이는 단순하게 성화가 지닌 윤리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18절에 나타난 세상을 향한 제자들의 파송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가? 그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도록 함에 놓여 있다(21절). 이렇게 세상을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이끄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의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한다는 예수님의 전제조건이 고려될 때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행위는 또한 선교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임무 또는 과제로서의 성화는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윤리적 차원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성도가 자신과의 관계, 즉 내향적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성화는 그 목적적 차원에 있어서 세상을 향한 선교적 과제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성도가 맺는 세상과의 관계, 즉 외적 관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화가 지닌 이중적 측면이 고찰된다. 성도가 자신과 맺는 내향적(inward) 관계와 세상과 맺는 외향적(outward) 관계가 이에 해당된다.[16] 이 두 관계는 공통적으로 구원론적(soteriological) 차원을 지니고 있다. 성도는 자신과의 내향적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차로 닮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게 된다. 또한 성도

16) 여기에 언급된 외향성은 거룩성의 제의적 (cultic) 측면과 관련된 외면화(externalization) 또는 의식화 (ritualization)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G. C. Berkouwer, *De Kerk II: Apostoliciteit en heiligheid* (Kampen: Kok, 1972). 141-42.

가 세상과의 외향적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행위는 복음 전파의 대상자인 세상으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를 올바르게 믿고 이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배경이 마련된다. 거룩성이 관계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는 바빙크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고찰한다면, 성화론을 논함에 있어서도 이 관계가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성화의 내향적 그리고 외향적 측면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신적 거룩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화에 있어서 이중적 방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적 거룩성과 성화에 있어서 이러한 이중적 방향성은 어떤 점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양자는 공통적으로 구원에 관계된 것이며 또한 선교라는 차원을 지향하고 있다. 선교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구체적 매개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므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경험한 자를 통해 그 유효성이 드러난다. 그러나 양자는 다음의 사실에 있어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즉 신적 거룩성에 있어서 인간의 반응으로서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요구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주도되는 인간의 피동적 반응이라는 차원을 지니고 있다. 즉 신적 거룩성은 그 자체로서 능력(power)에 해당되는데 이 능력은 일종의 구심력 (centripetal force)에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피조물들을 거룩성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다.[17] 이는 구체적으로 구원의 제공이라는 긍정적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거룩성의 능력을 수용하는 수동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란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차원을 지니게 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성화에 있어서 윤

17) Pannenberg, *Systematic Theology*, Vol. 1, 398.

리적 차원으로 드러난다. 이런 맥락에서 바빙크는 성화의 윤리적 차원을 강조하여 이를 '적극적 성화' (active sanctification)라고 부르기도 하였다.[18] 또한 성화의 능동적 차원은 윤리적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선교적 차원에까지 이르게 된다.

IV. 교회의 거룩성과 선교의 관계

1) 교회의 거룩성과 개인적 성화

교회의 속성으로서의 거룩성을 고찰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개별적 성도들의 성화에 근거하여 이를 선물(gift)과 과제 (task)로 구분하는 것이다.[19]

첫째, 교회에 거룩성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는 기독론적이며 성령론적인 차원과 깊게 관련되어있다(고전 6:11).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의 몸된 교회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자신의 옛 자아에 대해서는 죽는다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영역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새로운 영역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에 해당된다.[20]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의 일원이 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18) GD IV, 238.

19) Van Genderen & Velema,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k*, 649.

20) Otto Weber, *Grundlagen der Dogmatik* II (Neukirchen-Vluyn: Neukirchner, 1962), 374.

속한다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획득하신 의와 거룩함이 교회에 주어지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됨으로서 그의 거룩함이 교회에 전적으로 선물로 부여되었음을 가리킨다.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결과로 이제 거룩한 속성을 지니게 되었는데 개인적 성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거룩성 또한 하나님의 선물에 해당된다.

또한 성화가 기본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성화는 성령이 우선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영적 성장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삶과 교제,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21]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성령에 참여함으로서 상호간에 긴밀한 연합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성화는 한 개인의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성숙함에 따라 그 혜택을 누리게 되고 이를 통해 더욱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개인이 교회에 참여함으로서 더욱 거룩해지며 성숙하게 되고 이를 통해 교회에 더욱 기여하게 되고 그 결과 교회 공동체 또한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게 되는 상호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 개인의 성화와 교회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며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성화에 관련된 신약 성경의 표현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복수형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되었다.

둘째, 성화와 관련된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명령들이며 요구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교회의 거룩성이

21) 에드먼드 클라우니, 「교회」(서울: 한국기독학생회, 1998), 102-3.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하신 과제임을 부각시킨다.[22]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임과 동시에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왜냐하면 성화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일하도록 부르신 것이기 때문이다.[23]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해졌으며(고전 1:2) 이 거룩성에 근거하여 이를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야 하는 책임과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선물과 과제로서의 거룩성의 상호관계는 신약 성경의 성화에 대한 표현들에 주로 직설법과 명령법이 함께 사용된다는 사실에 근거해 있다. 루돌프 불트만(Rudolph Bultmann)은 로마서 12:1의 해석을 통하여 직설법과 명령법은 일치(Einheit)를 이룬다고 주장하였다.[24] 이러한 일치에 대한 해석이 지닌 장점은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석은 개핀(Richard Gaffin)이 지적한 바와 같이 명령법에 대하여 직설법이 지닌 우선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25]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과제는 교회 스스로의 힘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이 힘을 단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부여받으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요 15:5). 이는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빌 2:13),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랑과 신뢰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에 해당된다.

22) Paul S. Minear, *Image of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139.

23) Weber, *Grundlagen der Dogmatik* II, 375.

24) Rudolph Bultmann,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 (Tuebingen: Mohr Siebeck, 1953), 334.

25) 리차드 개핀, 「구원이란 무엇인가」(서울: 크리스챤출판사, 2007), 133; Van Genderen & Velema, 591.

2) 교회의 거룩성과 선교

교회의 거룩성과 이에 근거한 성화라는 관점에서 교회의 본질에 부여된 선교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대표적인 신학자들로서 바르트, 몰트만, 그리고 베르까우어를 들 수 있다.

a) 칼 바르트

바르트는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 거룩성이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에 근거한 것이며 이에 대한 반영이라고 주장한다.[26] 이 거룩성은 그리스도안에서 이미 성취된 객관적 성화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의 성화에 근거한 간접적 성화이므로 그 거룩함은 원래적 의미(*propria*)의 거룩함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룩함(*aliena sanctitae*),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sanctitate Jesu Christi*)에 해당된다.[27] 이제 성도들이 스스로의 성화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으며 단지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의 성화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8] 그러나 그의 거룩성 이해가 전적으로 수동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칼빈이 주장하였던 그리스도에 참여함(*participatio Christi*)을 가리킨다.[29]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받아 누린다는 성화의 수동적 차원이 곧 그리스도의 요구를 따른다는 능동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자신의 성화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성화의 은혜

26) KD IV/1, 768, 770, 774, 775, 783.
27) KD IV/2, 586.
28) KD IV/2, 584.
29) KD IV/2, 586.

를 누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순종 또는 최고의 단어로 불리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다.[30] 이러한 성화의 능동적 측면을 살펴 볼 때 이에 상응하는 교회의 거룩성 또한 "인간의 가시적 존재를 위한 실제적이며 구체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실상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바르트는 지적한다.[31] 따라서 교회의 거룩성은 우선적으로 개인이 지닌 거룩함의 수동적 차원에서 비롯되지만 이는 또한 인간의 순종이라는 능동적 차원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순종이라는 능동적 차원은 성화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그 모습과 성격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32] 이는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자신인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이를 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대한 증인이 되며 또한 그 분과 함께 거룩한 자들(Mitheiligen)이 된다.[33] 교회의 거룩성에 내포된 능동적 차원으로서의 순종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증인이 된다는 사실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통하여 자신이 거룩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임을 뜻한다.[34]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은 성도의 본분은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이에 근거한 자신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소명의 핵심은 그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드는데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35] 성도 개인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대한 증인이라는 사실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그

30) KD IV/2, 585.
31) KD IV/1, 781.
32) KD IV/2, 592.
33) KD IV/2, 590.
34) KD IV/2, 586.
35) KD IV/3.2, 660.

대로 적용된다. 즉 교회에 주어진 사명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단순히 그 분을 선언하는 것이 곧 그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다.[36] 이는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와 계시에 해당된다.[37] 따라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하신 거룩함을 더욱 총체적인 차원에서 복음으로 증거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선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선교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은 세상에서 비롯되는 외적인 것과 교회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내적인 것이 있다.[38] 외적 위협은 다시 박해와 관용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바르트는 기독교를 무시하는 것이 박해하는 것 보다 더 무서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오히려 교회 자체 내에서 주어지는 위험들로서 소원화(Fremdhoerigkeit)와 자기 예찬(Selbstverherrlichung)이 이에 해당된다.[39] 소원화는 교회와 세상 사이의 간격을 극복하려는 신실한 동기에서 시작하며 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을 이기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그 결과는 세상에 대한 자기 적응(Selbstanpassung)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속화(Saekularisierung)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킴으로서 발생한다. 그 결과 복음의 원래적 능력과 의미가 사라지고 대신에 특정한 상황이 요구하는 사고에 걸맞게 적응하게 된다.[40] 한편 자기 영화는 신성화(Sakralisierung)를 동반하는 현상으로서 자기 주장(Selbstbehaptung)을 통해 이루어진다.[41] 신성화는 성직과 교회 권력의 경직화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앞서 언급된 대로 자기 예찬으로 나타나게 된다. 교회 자체가 지닌 능력과 권위를 지나치게 확인하고 이를 중요시함으로서 자신을 다른 어떤 것 보다 높이게 된다. 교회 자체가 지닌 영이 성령을 대신하게 되고 교회 자체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교회의 직분, 예전, 성례전, 그리고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설교 등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어 교회는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예찬하게 된다. 교회의 자기 예찬 결과는 다른 법들을 세워 복음을 억누르는 것이며 결국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바르트는 강력하게 비판한다.

바르트의 교회의 거룩성과 선교의 관계 설정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은 앞서 언급된 이중적 방향성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바르트가 언급하는 "이중적 방향성의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즉 그가 주장하는 원심적 방향성과 구심적 방향성에 있어서 사실상 그 주체가 교회가 아닌 성령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실제로 행동하는 이는 성령이시며 그가 자신을 세상에 속한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며 그들을 자신의 방향 아래 설정하고 그의 거룩함에 대한 증거자로 설정하기 때문이다.[42] 성령이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성취한 객관적 거룩성을 받아들이도록 방향을 설정하신다. 그 결과 교회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하는 구심적 방향성을 지니게 된다. 교회에게 이 방향성은 자증 (Selbstzeugung)으로 나타난다.[43] 또한 선교에 있어 성령이 교회를 증거하는 개인과 교회로 만든다는 점에서 사실상 그 원심적 방향성의 주체는 성령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바르트는 성령을 주관적 성화의 주체로서 파악하였다고 볼 수 있다.

36) KD IV/3.2, 911, 914-15.
37) KD IV/3.2, 916.
38) KD IV/2, 748f.
39) KD IV/2, 754f.
40) KD IV/3.2, 936f.
41) KD IV/2, 756f.
42) KD IV/2, 590.
43) KD IV/2, 662.

b) 위르겐 몰트만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의 대리자로서 교회를 이해하는 대표적인 신학자로서 위르겐 몰트만(Juergen Moltmann)을 들 수 있다. 몰트만은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세상과 관련하여 이해한다.[44] 그의 교회 이해가 항상 세상을 전제로 삼는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전포괄적인 차원을 지니게 된다. 그의 교회론은 철저하게 기독론에 근거한 교회론이며 이는 구체적으로 그의 기능에 근거한 신학에 해당된다.[45] 또한 그의 기독론적 교회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성령에 의하여 체험되고 이해된다는 그의 신념에 따라서 성령론적 교회론에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한 교회론으로 나타난다.[46] 또한 그의 교회론은 선교적 교회론에 해당된다. 그의 선교적 교회론은 서양 기독교의 몰락이라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선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리스도의 선교가 교회를 만든다."고 보았다.[47]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또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장차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몰트만은 로마 가톨릭 선교학자 비체돔 (George Vicedom)이 주장하였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에 동의하면서 선교를 복음 전파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기존의 선교개념을 탈피하여 이를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확대 해석하였다.[48] 따라서 그의 교회

44) Juergen Moltmann, *Die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Ein Beitrag zur messianishen Ekklesiologie* (Muenchen: Chr. Kaiser, 1975), 66-82. Die Kirche로 줄여서 표기함.

45) Die Kirche, 20-21.

46) Die Kirche, 43ff. 특히 49-53.

47) Die Kirche, 23.

48) Die Kirche, 24.

이해는 기독론적 기초에서 출발하지만 삼위일체론적 차원과 선교적 차원의 결합을 통하여 이 세상을 그 영역으로 하는 교회에 해당된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성령의 지도 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대행자라고 볼 수 있다.[49]

그렇다면 몰트만은 교회의 거룩성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가? 먼저 그는 교회의 거룩성을 교회의 속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이를 교회의 표지로 파악한다. 이 표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의 구성적 요소들'이라고 보았다.[50] 전통적 교회의 속성은 인간이 체험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체험되고 확인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교회의 표지로 이해되었다.[51] 몰트만은 교회의 거룩성을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다룬다. 먼저 그리스도의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의 구성원들의 거룩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행위에 해당된다.[52] 그리고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전망을 통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희망의 진술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한다. 즉 거룩성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내적 본질에 속한다. 그리스도안에 현존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이 거룩성에 참여하게 되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종말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이런 맥락에서 거룩성을 지닌다.[53] 마지막으로 몰트만은 교회 공동체가 신앙에서 행해야 할 행동의 진술로서 교회의 거룩성을 말한다. 교회에 속한 개인들이 죄에

49) 이형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20세기 주요 신학의 종말론적 교회론」(서울: 한들출판사, 2005), 83.

50) Die Kirche, 363.

51) Die Kirche, 364.

52) Ibid.

53) Die Kirche, 365.

대항하여 투쟁하고 의로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들을 순종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당위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거룩해지는 과정 중에 놓여 있다.[54] 몰트만의 거룩성은 더 이상 속성으로서 교회의 본질적 구성요소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 참여 가능하고 체험 가능한 신앙 고백, 희망 그리고 행동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몰트만의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이해는 그의 선교 개념과 어떤 관계를 지니게 되는가? 그는 교회의 거룩성을 칭의함을 받은 죄인들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과 직결시킨다.[55]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약속(*promissio*)이 세상을 향한 사람의 선교(*missio*)의 근거를 이루기 때문이다.[56] 교회의 거룩성은 구체적으로 죄인인 인간의 구속으로 나타나고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통해 실현된다. 즉 교회의 거룩성이 인간의 구속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종말이 다가오고 이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피조 세계의 도래를 뜻한다. 이는 죄로 점철된 과거로부터의 돌아서서 미래를 향하는 회개의 움직임으로 나타난다.[57] 이런 맥락에서 몰트만은 거룩한 교회를 '회개하는 교회'(die umkehrende Kirche)로 정의하면서 이를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라는 구호에 대한 해석으로 이해하였다.[58]

또한 몰트만은 교회의 거룩성을 가난과 직결시킨다. 그가 말하는 가난은 영적, 도덕적, 경제적 측면 등을 포함하는 가난으로서 인간의

54) Die Kirche, 365-66.
55) Die Kirche, 379-80.
56) 위르겐 몰트만, 「희망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293.
57) Die Kirche, 98-99.
58) Die Kirche, 381.

노예화와 비인간화에 대한 표현에 해당된다. 해방신학자 구티에레즈(G. Gutierrez)의 견해를 따라 몰트만은 가난에 대한 연대성과 이에 대한 항거로서 기독교적 가난을 주장한다.[59] 이는 단순히 교회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로 만들거나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과의 교제와 가난에 대한 항거를 통하여 교회는 거룩해지고 이를 통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즉 가난한 자들과의 교제와 고통당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거룩성의 비밀이라고 몰트만은 이해한다.[60]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세상을 채우기 위하여 가난해졌던 것처럼 교회도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세상을 향한 메시야적인 파송의 차원에서 투자함으로서 가난해진다.[61] 이는 선교를 위해 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가난을 통한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대한 몰트만의 이해가 담겨져 있다. 즉 기독교적 가난이란 가난한 자들로서의 교제이며 또한 가난한 자들과의 교제이지만 이는 세상을 향한 메시야적 파송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기도 하다.[62] 교회의 가난과 가난한 자들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메시야적 파송, 즉 선교를 위한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즉 가난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세상을 위해 파송하는 교회는 메시야적 선교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가난한 자들과의 교제이며 여기에 바로 교회의 거룩성이 지닌 비밀이 드러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순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난, 슬픔과 고통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구속과 이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63] 이러한

59) Die Kirche, 97, 383.
60) Die Kirche, 383.
61) Die Kirche, 382.
62) Die Kirche, 382-83.
63) 위르겐 몰트만, 「희망의 신학」, 260.

선교와 교회의 가난에 대한 몰트만의 이해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진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닌 보편성이 담겨 있다.[64]

몰트만의 교회의 거룩성과 선교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그 핵심은 가난이라는 주제이다. 가난은 교회가 자신의 거룩성이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만들며 그 분에게 집중함에 있어서 중심과 기준의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즉 교회의 거룩성에 있어서 구심적 방향성의 기준은 가난한 자이며 이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행위를 통하여 교회를 형성하므로 교회는 가난의 교회이며 가난한 자의 교회이다. 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세상을 향한 원심적 방향성의 출발점과 기준은 가난한 자이며 이 방향성은 모든 사람을 향하게 된다. 여기에 드러난 선교의 보편적 성격이 종말의 희망을 통해서 구현된다고 보는 것이 몰트만의 견해이다.

c) 베르까우어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 베르까우어(G. C. Berkouwer)는 교회의 거룩성을 돌프 오토(Rudolph Otto)가 내세웠던 거룩한 교회가 지닌 매력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오토가 이해한 거룩함이란 신비롭고 경이한 것임과 동시에 이는 또한 매력적인 것이었다.[65] 베르까우어는 오토의 거룩함에 대한 정의에 주의하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놀라움에 근거한 매력과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베르까우어는 이 매력을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여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에

64) Die Kirche, 97-98.
65) Rudolph Otto, *The Idea of the Hol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58), 31ff.

대한 기쁨과 그 풍부함에 대한 반응으로 밝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66]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매력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성도를 자만감에 빠지게 할 위험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 베르까우어는 오히려 구원에 드러난 새로움의 측면에 주목한다. 그리스도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움이란 새로운 생명, 즉 중생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교회가 지닌 모든 고루하고 보수적인 것을 타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67] 거룩성의 표현으로서 새로움이란 교회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안에서 주어진 생명의 새로움을 위해 구별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교회가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 이는 빛과 계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요일 2:8)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한다고 베르까우어는 주장한다.[68] 교회의 거룩성은 주님의 계명에 대한 새로운 책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의 거룩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게 될 때 이는 선교와 어떤 관련을 맺게 되는가? 베르까우어는 교회의 분리로 이해되는 거룩성의 속성을 세상이라는 외부를 향하는 교회의 본질과 대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연결시킨다.[69] 즉 교회가 지닌 원심적 동기, 즉 선교의 동기는 교회를 구성하는 이차적 요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관계된 것임을 밝힌다. 이는 교회의 방향성과 역동성을 규명하는 것이며 교회는 이 선교의 동기를 통하여 세상과 관계를 맺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복음의 보편성은 선교에 의해 규명되는 교회의 원심적 방향성에 의해서 증명된다.

66) G. C. Berkouwer, *De Kerk* II, 147.
67) Ibid., 149.
68) Ibid., 151-52.
69) Ibid., 226f.

베르까우어는 교회가 세상을 향한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거룩성을 세상에 대한 우월감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동반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세상으로 파송받은 교회가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그 순결함을 지키는 거룩성이란 세상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낮은 자의 자세에서 세상을 향하여 간청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70] 일종의 우월감과 교만감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 긍휼을 지니고 선교에 임하여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선교의 태도는 구체적으로 주님을 뒤따르고 그를 닮아가고 그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랑을 본받고 덧입는 제자의 태도이어야 한다.[71] 그렇다면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베르까우어가 주장하는 선교를 위한 교회의 방향성은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원심적(centrifugal) 방향성과 또한 선교의 올바른 태도로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간구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구심적(centripetal) 방향성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이중성은 베르까우어 자신이 설명하는 교회의 일차적이고 내부적인 부요함을 구심적인 것으로, 그리고 이차적이고 부차적인 선교에 관한 것을 원심적인 것으로 이해하므로 교회의 부요함과 선교의 본질 모두를 잘못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다.[72] 왜냐하면 이 이중성의 중심은 사실상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이중성에 있어서 구심적 방향성은 교회의 제도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교회의 설립(*plantatio eccleisae*)을 선교의 최종 목표로 이해하는 것 또는 교회가 자신으로 향하려는 교회성(zich zelf gekeerde kerkelijkheid)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73] 오히려 이 구심적 방향성은 교회와 선교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제자도와 관계된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설립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원심적 방향성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중성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므로 교회 자신은 이 방향성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뜻한다. 베르까우어는 이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현존과 선포의 구도를 선택하였다.[74]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세상 속에 현존하는 것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현존은 어디까지나 세상 속에서 선행적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의 현존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것이다.[75] 또한 이 현존 가운데 표현되어 이 현존의 의미를 드러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증언, 즉 선포에 해당된다. 이 선포는 먼저 언어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의 사랑과 자비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교회가 지닌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증거하시는 영이신 성령(the Holy Spirit as Witnessing Spirit)의 사역에 근거한 것이다.[76] 그러나 말과 행동의 불일치로 인해 교회의 말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 행동을 통한 선포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베르까우어는 행동의 명료함과 영향력이 선포의 확실한 수단이며 참된 존재와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증언이라고 설명하였다.[77]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본받는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

70) Ibid., 232, 240-41.
71) Ibid,, 239f.
72) Ibid., 230-31.
73) Ibid., 249.
74) Ibid., 250ff.
75) Ibid., 252; W. Krusche, "Missio-Praesenz oder Bekehrung," *Kerygma und Dogma* (1968), 119ff; P. Beyerhaus, "Praesenz, Solidaritaet und Zeugnis im miss. Dienst," *Zeitschrift fuer Theologie und Kirche* (1968), 371.
76) Harry R. Boer, *Pentecost and Missions* (Grand Rapids: Eerdmans, 1961), 101-112.
77) Berkouwer, *De Kerk II*, 255.

를 선포하는 선교에 임하는 것은 교회가 지닌 거룩성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방법들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존과 선포는 앞서 다루어진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선교의 이중적 방향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현존을 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상으로 나아갔던 사실에 근거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 분을 본받고 그의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도록 말과 행동으로 선포한다. 이 점에 있어서 현존과 선포는 선교에 내재적인 이중적 방향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선교를 위한 성령의 능력 부여와 성화와의 관계

20세기 초반에 시작된 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오순절 운동은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선교를 목적으로 표방한 운동이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주사 대부흥운동(Azusa Street Revival)을 주도했던 시모어(William Seymour)와 함께 오순절 운동의 주창자로 불리는 찰스 파함(Charles Parham)은 그의 제자이었던 오즈만(Agnes Ozman)양이 받았던 성령세례가 여러 가지 언어들을 구사하는 경험임을 상기시켰다.[78]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부흥운동과 성결운동(the Holiness Movement)에서 유행하였던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즉각적 재림과 이에 대한 대비로서 선교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였다.[79] 오

78) Sarah E. Parham, *The Life of Charles F. Parham*, 1873-1929 (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85), 66. 찰스 파함에 대한 전기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John R. Goff, Jr., *Fields White Unto Harvest: Charles F. Parham and the Missionary Origins of Pentecostalism* (Fayetteville, AR: Univ. of Arkansas Press, 1988).

79) 초기 오순절 운동의 선교적 성격에 대한 고찰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Allan Anderson, Spreading Fires: *The Missionary Nature of Early Pentecostalism* (Maryknoll, NY: Orbis Books, 2007).

순절 운동은 이런 선교적 토양에서 태어났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성령세례의 결과로 주어진 방언은 사실상 선교를 위해 사용될 외국어였다.

그러나 시모어에 의해 시작된 아주사 대부흥운동의 기관지이었던 *The Apostolic Faith*는 성령세례가 '성화된 삶에 주어지는 능력의 선물'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80] 이는 오순절 운동에서 성화와 성령세례가 분명히 서로 구별되는 가르침으로 이해되었음을 뜻한다. 여기에서 성령세례가 능력의 선물이라는 정의는 성결운동에서 흔히 추구하였던 '봉사를 위한 능력' (power for service)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방언은 성령의 선물로 '봉사를 위한 능력' 을 부여받는 성령세례의 초기 증거에 해당된다. 따라서 방언은 성령의 역사로 이미 성화된 자에게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짐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1) 개인의 성화와 선교

그렇다면 오늘날의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은 선교와 성화와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은사주의 운동의 대표적 신학자인 로드만 윌리엄스(J. Rodman Williams)의 성화에 관한 견해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윌리엄스는 성화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거룩의 의미가 인간의 내적 순결함(inward purity)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81] 그리고 내적 순결함에서 시작된 거룩함은 그 범위가 인간의 전 영역에 걸쳐 확대되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세운다. 즉 인간의 영, 혼 그리고 육에 걸쳐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82] 이를 이루는 방법으로서 인간의 영에 내

80) Walter J. Hollenweger, *The Pentecostals* (London: SCM, 1972), 513에서 인용.

81) J. Rodman Williams, *Renewal Theology 2: Salvation, the Holy Spirit and Christian Living* (Grand Rapids: Zondervan, 1990), 84.

82) Ibid., 94-100.

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들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성화의 주체로서, 성령을 성화에 있어서 능력 부여자로 설명하고 그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 전적으로 내적 작용임을 특히 강조한다.[83] 성령은 이렇게 인간의 내적 영역에서 그를 정화시키시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화는 또한 죄에 대해서 스스로를 죽이고 의에 대하여 스스로를 살리는 인간에게 부여된 과제이다. 인간은 이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체화된다.[84] 여기에서 윌리엄스에 의해 강조되는 바는 성령의 능력 부여란 인간을 성령의 자유 속으로 옮기는 움직임이며 이를 통하여 인간이 실제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85] 성령의 능력 부여라는 방법을 통하여 인간은 이제 그 능력을 덧입어서 주체적으로 율법을 실제로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었음을 가리킨다. 인간의 능력이 성령에서 비롯되므로 크리스챤의 삶에 있어서 능력이란 항상 성령과 관련된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86] 여기에서 우리는 성화가 성령을 향하여 움직이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윌리엄스는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는 로날드 알렌(Ronald Allen)의 견해를 받아들여 성령을 선교적 영(missionary Spirit)으로 이해한다.[87] 선교는 실제로 성령을 기준으로 그를 넘어서 세상을 향하는 방향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행위는 먼저 성령의 능력 안으로, 즉 성령을 향하여 움직이는 방향성을 전제로 삼고 이루어지는 행위이다.[88] 따라서 윌리엄스의 선교 이해에도 일종의 이중적 방향성, 즉 성령을 기준으로 먼저 그 능력을 받기 위해 그를 향하여 움직이는 방향성이 우선적이며 이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방향성이 뒤따른다. 결론적으로 윌리엄스가 말하는 선교에 있어서 이중적 방향성은 전적으로 성령을 기준으로 삼는 방향성이라는 차원에 있어서 바르트와 베르까우어가 이해하였던 선교의 방향성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83) Ibid., 101-102.
84) Ibid., 116.
85) Ibid., 115.
86) Ibid., 423.
87) Ibid., 249; Ronald Allen, *The Ministry of the Spirit* (London: World Dominion, 1960), 제 1장의 둘째 섹션을 참고할 것.

2) 교회의 거룩성과 선교

윌리엄스의 교회 이해에 있어서 거룩성은 교회의 구별됨에서 출발하고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성령의 내주하심에 기인한 것이다.[89] 교회가 선교에 임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며 이 능력 부여는 교회의 선교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90] 그러나 윌리엄스는 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그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받은 구원을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이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이 부여됨을 보장하지 않음을 뜻한다.[91] 이는 적어도 윌리엄스에게 성화가 선교를 위한 능력 부여와 관계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또한 교회의 거룩성이 선교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음을 뜻한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교회 구성원들의 영적 현주소는 다

88) Ibid., 247.
89)Williams, *Renewal Theology 3: The Church, the Kingdom, and Last Things* (Grand Rapids: Zondervan, 1992). 30-34.
90) Ibid., 141.
91) Ibid., 143.

름 아닌 성화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윌리엄스가 이해하는 교회와 선교의 관계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받았는가에 달려 있다. 윌리엄스에게 선교는 선물로서의 성령의 능력과 관계된 것이며 이는 교회론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은 개념에 해당된다. 그러나 성화에서 비롯되는 교회 구성원의 거룩함과 교회 전체의 거룩성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영적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윌리엄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성령의 능력과 크리스챤의 생활은 거룩함에 의해 결합되기 때문이다.[92] 특이하게도 그는 개인의 성화를 위해 주어진 성령의 능력의 성격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회에 임한 성령의 능력은 세상을 위한 증거, 즉 선교를 위해 주어진 것으로 설명한다. 윌리엄스가 이렇게 교회의 거룩성과 선교를 분리시키고 양자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성령의 능력을 기준으로 선교의 이중적 방향성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양자 관계에 대한 이러한 그의 이해는 사실상 개인의 성화와 선교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이중적 방향성과 교회의 거룩성과 선교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이중적 방향성에 드러난 일치와 조화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개인의 구원에서 근거한 교회의 거룩성은 더 이상 선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음을 뜻한다.

VI. 나가는 말

본 논문은 교회의 거룩성이 선교의 본질 이해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위해 개략적인 차원

92) Williams, *Renewal Theology 2*, 423.

에서 신적 거룩성에 대한 이해가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간의 거룩성 이해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관계성이라는 차원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성화를 통해 표현된 개인의 거룩성과 교회의 거룩성에 이중적 방향성을 중심으로 선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인의 거룩성이란 인간의 내면적 삶과 외부적 삶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선교적 당위성이 이미 내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즉 개인이 자신을 향하여 거룩을 실현하는 내향적 방향성과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외향적 방향성이라는 이중적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교회의 거룩성은 일차적으로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거룩함이 교회에 주어진 선물에 해당되므로 교회의 속성으로서의 거룩성은 수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교회에 부여된 과제로서의 거룩성을 고찰할 때 교회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구심적 방향성과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원심적 방향성을 통하여 이중적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교회의 거룩성과 선교와의 관계를 다룬 신학자들 가운데 바르트, 몰트만, 그리고 베르까우어의 견해를 이중적 방향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바르트는 성화를 객관적 성화와 주관적 성화로 나누어서 고찰하는 가운데 교회는 성화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구심적 방향성과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적 차원의 원심적 방향성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르트는 이 이중적 방향성의 주체를 교회가 아닌 성령으로 파악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즉 주관적 성화의 주체가 성령이시므로 이러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주체는 교회가 아닌 성령이라고 밝힌다. 몰트만은 교회의 거룩성과 선교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가난을 핵심적인 주제로 다룬다. 그는 거룩성을 가난과 가난한 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회

를 가난의 교회 또는 가난한 자의 교회로 파악한다. 가난한 자를 포함한 모든 세상을 향한 메시야적 증거로서의 선교를 이중적 방향성의 관점에서 고찰해 볼 때 이 방향성의 기준과 중심은 교회가 아닌 가난과 가난한 자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가난한 자의 교회가 된다고 본다. 선교에 있어서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의 기준 또한 우선적으로 가난한 자이며 이 가난한 자를 중심으로 종말의 희망이 도래하고 이를 통해 복음의 보편성이 보장된다고 보았다. 베르까우어는 먼저 교회의 거룩성을 구원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새로움과 매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교회의 거룩성은 그리스도와 그의 겸손함과 자비를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 새롭고 매력적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심적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세상을 향하는 원심적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 이중적 방향성을 선교라는 관점에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중현존과 선포라는 도식을 사용한다. 선교를 위한 세상에서의 교회의 현존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본받는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심적 차원과 또한 세상을 향하여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점에 있어서 원심적 차원을 함께 지니는 이중적 방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이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선교를 위한 성령의 능력부여와 성화' 라는 제목 하에서 살펴보았다. 초기 오순절 운동은 성화된 삶에 임하는 능력 부여로서의 성령세례를 강조함으로서 성화와 선교를 구별하였지만 성화된 삶 위에 임하는 능력이란 선교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은사주의 신학자인 윌리엄스는 거룩성을 크리스챤의 내적인 삶에 국한시키는 성화론을 전개한다. 성도들이 구원받고 성화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선교를 위한 능력 부여와 동일시 될 수 없다고 보는 그의 견해는 사실상 교회의 거룩성과 선교 사이에 실제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는 양

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중적 방향성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닌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윌리엄스는 성령의 능력 부여를 개인의 성화에 있어서 핵심으로 파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회에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선교와 관련하여 개인의 성화와 교회의 거룩성 사이에 존재하는 이중적 방향성의 일치와 조화를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